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6월 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81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거듭된 병고와 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마음을 입어 건강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 이 경 선 -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강원도의 저희 마을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도를 받아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어서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을 수 없었지만 교회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서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병이 생겼습니다.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으면서 ‘변정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관절이 굳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황급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발병 원인조차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리가 그러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하루하루 아프고 슬픈 나날을 보내던 중에 어릴 때 저를 예배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믿음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엄마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치료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서서히 다리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뭘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걷지 못하여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에 간 제가 혼자 힘으로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시고 엄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며 집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반사로 교회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하였습니다. 시댁이 불신 가정이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님이 저의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혼했는데, 제가 임신한 후로 시어머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시어머님과 자주 다투다가 혹시라도 뱃속의 아기가 잘못될까 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이번에는 절에 다니자고 강권하였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가 몸이 약하고, 가진 돈도 없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루는 시어머니 손에 끌려가다시피 하여 절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가 저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하여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몸 여기저기가 쭈시고 아팠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시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열심히 교회에 다니겠다고 전에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3일 동안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는데 전신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신히 오른손만 조금 움직이고, 말도 안 나와서 모든 의사소통을 글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병명도 모르고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를 받지 못하니 그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리다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그날 밤에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저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병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병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갔습니다. 몸을 의자에 앉혀준 그대로 하루 종일 눈으로 성경을 읽고 눈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나 다름없이 생활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저의 뺨과 목을 적셨습니다.

그 며칠 후 성경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제 몸에 환한 빛이 비취지는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이 들더니 몸의 마비가 풀리고 말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게 된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감격하여 나같은 죄인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94년도에 남편의 직장 일로 안양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마침 전도하려고 오신 구역장님의 도움으로 은혜와진리 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할렐루야!

그 이듬해에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간 남편이 근무 중에 복숭아뼈 부위를 다쳐 올라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위한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악성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병원 치료비를 위해 친척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교구 전도사님과 구역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남편의 영혼을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남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한 달만 더 남편에게 시간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남편의 생명을 한 달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기간에 교역자님과 병원선교회 회원들의 심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픈 것도 잠깐, 살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8년쯤 지났을 때 또다시 제 몸의 왼쪽으로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니 더 마음이 괴롭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교회 이웃돕기선교회에서 집에 찾아왔지만 제 몸의 상태를 보여주기가 싫어서 심방을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찾아오셨을 때, ‘내가 천사들을 내어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열고 심방을 받았습니다. 선교회의 장로님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를 병원에 있으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보인다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제 형편에 부담되던 병원비를 이웃돕기선교회에서 도와주셔서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이겨 내기로 하고 더 이상의 도움은 사양하였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대신 매일 교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동선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에 출

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갈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안수집사님 한 분을 알게 해주셨고, 집사님은 바쁘신 중에도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달려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병원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저는 주기적으로 회복되어 걷다가 다시 걷지 못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온전하게 들리지 않는 한 쪽 다리를 끌면서 20년 가까이 걸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초기에 백신 2차 접종 후 곱팡이 알레르기라는 증상으로 기침이 심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며 대화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하기 힘든 일을 교회의 집사님들이 대신 해주시며 저를 정성껏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여 ‘자가면역 탈수초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마비 증상을 겪은 원인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중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니 뇌경색이 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낙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편 42:5)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뇌경색 때문에 보험료가 나오게 되어 병원비를 내고도 남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에서 소개해 준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혼자여서 외로워 보일지라도 그러나 저의 영혼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병실에 저 혼자 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맞춤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질질 끌고 다니던 다리가 나아서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나오던 기침도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지나온 과정을 생각해 보면 병원에 입원하게 된 동기부터 모든 과정에 저를 낮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저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거듭된 병고를 이겨내어 오늘의 제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잘 자라고, 그 중 큰 아들은 어느새 결혼을 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오자 이웃에 살면서 저를 친동생처럼 보살펴주셨던 집사님이 저를 잊지 않고 오래 병원에서 생활한 제가 잘 적응하고 빨리 회복하도록 또 도와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웃돕기선교회와 교동선교회 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하며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 십사수를 놓아서 감사의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로 다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헌신을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구역공과 제1권 (제9단원 : 성도의 삶)

(제51과) 감사하는 삶

- 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요절 :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 찬송 : 찬송가 488장(새찬송가 428장), 489장(새찬송가 429장)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이나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이나를 막론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감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 생활에 힘쓰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는 말씀은 감사의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종적인 열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공과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금까지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 생활을 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큼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는 말씀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장래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자들을 정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2. 역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형통할 때에는 누구나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감사란,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연단 받아 정금처럼 변화되는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불과 같은 역경을 통하여 신앙에 연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감당키 어려운 고난에 봉착하면 좌절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에서 이탈하여 타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할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감사 생활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고 하였으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 5:7)고 하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흠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열 자녀를 두었으며 또한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 아침에 사단의 시험으로 열 자녀와 전 재산을 다 잃는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단을 이용하여 욥의 신앙을 알아보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욥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그때까지 그의 마음에는 많은 번뇌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

하나님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한 욥에게 복을 주시되 이전의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탄할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로 작정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이 의인 되었으며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천만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그런고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고난이 성도를 낙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 8:32)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혼의 구원 외에도 범사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롬 8:17,18).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보이시며, 특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에게는 천국의 영광에 동참케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기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기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41번길 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